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박동진*·김송미**·이지연***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6차년도(2016) 조사에 참여한 총 1,329명 청소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진로장벽, 학교적응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진로장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학교적응은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에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 청소년, 성취동기, 진로장벽, 학교적응, 매개효과,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I. 서론

청소년의 진로는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경험과 배움을 통하여 자아를 탐색하고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를 추구하기 위한 역량을 발달시키는 진로성숙의 과정을 거친다(노지혜, 문성호, 2019). 그러나 진로문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

* 주저자 : 한영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wookana@hanmail.net

** 교신저자 : 시코쿠가쿠인대학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matumism0730@gmail.com

*** 공동저자 : 명지대학교 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박사과정, verangel@nate.com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김계현, 김영화, 2011),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진로탐색 및 결정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비(非)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보다 다양하고 수많은 장벽들이 산재해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지도와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은 학업 및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강현주, 김정화, 최민지, 2012; 양계민, 강경균, 김주영, 2017), 기초학력의 부족과 학업부진, 중도탈락 등의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순규, 2011; 오성배, 2007). 또한,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부 혹은 모가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남부현, 최충옥, 2012),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는 자녀의 성장과 함께 보다 두드러지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부족과 학교교육의 참여 및 지원의 부족이 더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김유경, 2011; 이순형, 2007). 이뿐 아니라 진로선택과 동기부여에 있어 부모로부터 충분한 소통과 동기부여를 받지 못한 다문화 청소년은 진로와 관련한 동기를 형성하고 적절한 진로를 선택하는 데 크게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장혜림, 이래혁, 2019). 양계민 외(2017)는 비(非)다문화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다문화 청소년이 낮은 진로의식과 경제적 어려움, 진로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영은, 정철영, 이건남(2012)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는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직업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이 진로와 관련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들을 위한 진로지원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언어습득과 학업 및 학교적응 등의 어려움뿐 아니라(강현주 외, 2012; 양계민 외, 2017), 이로 인한 사회성 발달과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김갑성, 2008),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윤주, 이숙, 2009; 박주희, 남지숙, 2010; 양계민 외, 2017). 또한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에서 소외와 놀림, 따돌림과 폭력의 대상이 되어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높은 중도탈락률과 낮은 취학률 및 진학률을 보였다(설동훈, 2005). 이에 더해 지역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차별과 편견으로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었다(김수미, 정경은, 2013; 전병주, 2012).

다문화 청소년은 사회적응과 정체성 확립 등의 과업뿐 아니라, 생애발달 주기상의 청소년기로서 그 시기의 과업들도 함께 경험한다. 그중 진학과 진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창호, 2013). 이중문화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진로탐색과 진로결정 등에 있어서 비(非) 다문화 청소년들보다 어려움을 심하게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이 진로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의 이중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욱 어렵고 복잡한 경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Tao, et. al., 2018).

또한,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함, 진로에 대한 고민과 결정의 유보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오성배, 서덕희, 2012).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방해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 요인과 관련된 맥락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성숙 과정에서 이 진로성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중 하나인 진로장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노지혜, 문성호, 2019).

Crites(1969)는 진로장벽을 진로개발 관련 변인 중 맥락적 변인으로 진로 선택, 결정, 준비를 하는 가운데 개인이 진로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여기서 내적요인은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위협적인 조건들로 낮은 자신감, 낮은 자기개념, 낮은 성취동기 등이라고 할 수 있다(Luzzo, 1997; McWhirter, 1997). 김수현(2007)은 진로장벽에 대하여 자기진로 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 동기 부족 등의 심리적 진로장벽과 환경적 진로장벽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즉, 진로에 대한 탐색과 결정은 그 진로에 대한 충분한 동기를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박문예, 이영, 2016; 이혜미, 김유미, 2019). 청소년이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할수록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진로선택에 있어서 제한적이며 진로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김효선, 2013; 홍지선, 계은경, 2016; Albert & Luzzo, 1999; Gottfredson, 1981).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학교생활, 가정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 청소년도 진로탐색과 결정에 있어서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이러한 진로장벽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취동기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내적 욕구이며, 어려운 과업의 장애를 극복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이다(정원식, 1985). Murray(1938)도 어려운 과업의 성취, 관계의 인식 및 조직, 이상적 수준까지의 도달, 경쟁에서의 우위 선점, 재능 발휘 및 자존감 증대에 대한 욕구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를 향한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성취동기는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결정, 미래에 대한 계획 설계에 있어서 강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원덕(2009)에서는 진로진학에 대한 목표가 뚜렷한 학생일수록 성취동기가 높으며, 직업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과 확신을 가지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태도를 나타냈으며(박미선, 2012), 높은 진로성숙태도를 나타냈다(김민선, 2012; 김지혜, 2009). 또한, 진로에 대해 목표를 가지고, 결정한 진로방향에 대해 확신과 주체성을 갖고 진로를 준비하는 태도를 나타냈다(강원덕, 안귀여루, 2010).

일반적으로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은 진로와 직업교육 활동에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직업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서지훈, 신진숙, 2019). 박문예와 이영(2016)은 일반 고등학생의 성취동기가 학교생활과 성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가치와 진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진로에 대한 상담과 교육, 교사배치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즉, 성취동기는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결정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 태도와 행동의 원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성취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박동진과 김송미(2020)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진로결정성을 높인다고 밝혔으며, 이형하 외(2019)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이 성취동기를 매개하여 진로결정성을 높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를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결정과정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쳐, 진로장벽을 감소시킨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성취동기는 학교적응과도 연관되는데, 학교적응과 관련된 많은 사항에서 성취동기가 높은 아동이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ennis et al., 1995), 박진규와 김태연(2018)은 성취동기가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윤은영(2019)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과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그들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원재순, 김진숙, 2016). 학교적응은 구성원 간 상호평가에 의한 역동적 과정으로 학교환경과 개인 간의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과정이기에 청소년 발달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장혜림, 이래혁, 2019). 그

러나 다문화 청소년들은 언어발달의 지연과 학업성취의 어려움, 괴롭힘, 따돌림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극적인 대인관계 형성, 한국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차별과 편견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금명자 외, 2006; 오성배, 2007; 은선경, 2010).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과 그로 인한 차별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적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윤경, 이소연, 2009; 박준성, 최영진, 정태연, 2015).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교생활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성취동기는 학습동기 및 학습, 교사와의 관계 등등 학교적응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재아, 1991; 장혜진, 윤혜미, 2010). 낮은 성취동기는 학업에서의 낮은 성취에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 문제로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현정미, 신효식, 이선정, 2014; 홍재양, 2001). 이래혁, 채황석, 오채민(2020)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이중문화에 대한 스트레스는 성취동기와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중문화에 대한 적응뿐 아니라 학교적응에 있어서도 성취동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ynch & Cicchetti, 1997). 한편,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진로를 탐색하거나 결정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진로에 대한 탐색과 결정을 위한 준비단계 중 하나인 진로교육은 대체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교사와의 관계, 또래 관계, 학교생활의 흥미와 관심이 자연스러운 진로탐색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희와 윤미현(2011)은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해가며, 이는 진로에 대한 성숙한 태도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성숙한 태도는 부모와 교사, 친구와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김나래, 마립, 김경우, 이동귀, 2012; 김혜래, 2007; 조미형, 최상미, 엄태영, 2006), 특히 교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친밀한 또래 관계 등 학교생활 내에서 형성되는 요인들이 진로탐색과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오정아와 남부현(2014)은 학교적응 요인이 진로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 청소년들의 진로준비에 있어서 학교생활과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혜림과 이래혁(2019)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은 개인의 내면적 특성과 이 시기에 중요한 환경체계인 학교적응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발달과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

반 청소년의 진로 관련 연구에 비해 양적으로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학교적응, 진로장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과 이 영향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학교적응, 진로장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진로장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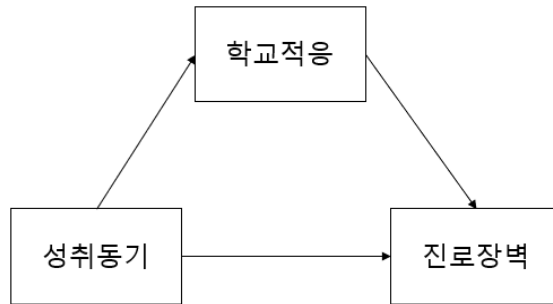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축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의 6차년도(2016)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서 조사한 다문화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비롯하여 중도입국 청소년과 외국인 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당초에는 조사대상을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모집단 분포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이 패널조사의 주요대상이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양계민 외, 2017).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 654명(49.2%), 여 675명(50.8%)이었으며, 연령은 15세 1,177명(88.6%), 14세 101명(7.6%), 16세 45명(3.4%), 17세 5명(0.4%), 18세 1명(0.1%)이었다. 부모의 외국인 여부는 모 1,283명(96.5%), 부 42명(3.2%), 둘 다 외국인 4명(0.3%)이었다.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과 이 영향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또한, 위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진로장벽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적응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6차년도(2016) 청소년 데이터의 원 데이터에서 종속변수인 진로장벽과 독립변수인 성취동기, 매개변수인 학교적응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변수에 따른 구체적인 측정도구 및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취동기

성취동기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6차년도 자료 중 Yu & Yang(1994)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은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내가 세운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나는 내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나 스스로 학습목표를 결정한다”, “나는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관심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 “나는 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한다”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1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 진로장벽

진로장벽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6차년도 자료 중 이은설(2005)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은 크게 ‘자기이해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각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기이해부족’ 영역은 “나는 나를 잘 몰라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영역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다양한 직업의 종류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경제적 어려움’ 영역은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다”, “대학을 생각하면 돈 걱정이 앞선다”, “원하는 학원(과외)에 다닐 형편이 안돼서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자기이해부족’은 .915,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은 .861, ‘경제적 어려움’은 .772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904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6차년도 자료 중 민병수(1991)를 사용한 정

회실(2009)을 수정·보완한 김지경 외(2010)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은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나는 학교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나는 모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에게 물어본다”, “나는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는데, 이 문항들 중 “나는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는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83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료를 SPS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측정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들 사이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하였고, 이 결과에서 도출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수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오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왜도, 첨도의 점수를 확인하여 정규분포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측정변수의 왜도 절대값(-.26~.06)이 3을 넘지 않고, 첨도 절대값(.06~.38)이 10을 넘지 않아 Kline(2015)이 제시한 정규분포성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성취동기	진로장벽	학교적응
최소값	8.00	9.00	5.00
최대값	32.00	35.00	20.00
평균	24.48	19.17	14.38
표준편차	3.75	5.28	2.56
왜도	-.03	-.26	.06
첨도	.63	.06	.38

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주요변수 간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변수 간의 Pearson 상관분석을 한 결과, 종속변수인 진로장벽과 독립변수인 성취동기, 매개변수인 학교적응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진로장벽은 독립변수인 성취동기와의 관계에서 부(-)적 상관을 보여($r=-.39$, $p<.001$),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이 낮고, 성취동기가 낮을수록 진로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매개변수인 학교적응은 종속변수인 진로장벽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r=-.38$, $p<.001$). 이에 따라 학교적응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이 낮고, 학교적응이 낮을수록 진로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인 성취동기와 매개변수인 학교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동기는 학교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r=.35$, $p<.001$), 이것을 볼 때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고, 성취동기가 낮을수록 학교적응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성취동기	2. 진로장벽	3. 학교적응
1. 성취동기	1		
2. 진로장벽	-.39***	1	
3. 학교적응	.35***	-.38***	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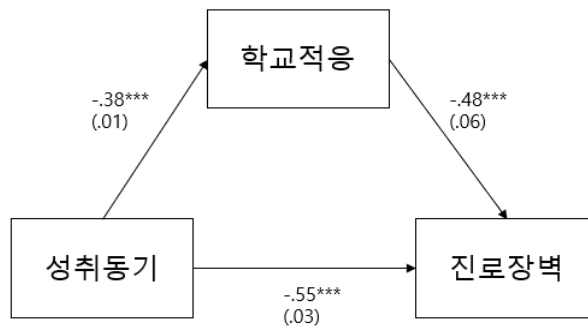
3.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매개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에 또 다른 변인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갖는 것을 뜻한다(Baron & Kenny, 1986).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에 의한 결과변수이면서 종속변수의 원인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변화하는 자료를 살펴볼 수 있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Tram & Cole, 2000).

<표 4>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경로		비표준 계수		표준계수	t	R ²	F
		B	S.E	β			
1단계	성취동기 → 진로장벽	-0.55	.03	-0.39	-15.65***	.156	245.20***
2단계	성취동기 → 학교적응	.38	.01	.56	25.12***	.322	631.07***
3단계	성취동기 → 진로장벽	-0.36	.04	-0.26	-8.70***	.194	159.44***
	학교적응	-0.48	.06	-0.23	-7.89***		

*** p<.001



*** p<.001

[그림 2]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진로장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9, p < .001$). 2단계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6, p < .001$).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성취동기와 매개변수인 학교적응이 종속변수인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진로장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26, p < .001$), 학교적응은 진로장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3, p < .001$).

또한, 3단계에서 살펴본 성취동기의 영향($\beta = -.26, p < .001$)은 1단계에서 나타난 성취동기의 영향($\beta = -.39, p < .001$)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교적응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취동기가 학교적응을 거쳐 진로장벽으로 가는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Z = 7.82, p < .001$),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향상되어 진로장벽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학교적응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진로장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진로장벽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취동기가 높으면 진로장벽은 낮고, 성취동기가 낮으면 진로장벽이 높은 것이다. 이 결과는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진로에 있어 적극적·주체적·능동적이며, 확신과 주체성을 가지고 진로를 모색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하였다(강원덕, 안귀여루, 2010; 박미선, 2012; 서지훈, 신진숙, 2019). 다문화 청소년들은 낮은 진로의식과 진로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는데(양계민 외, 2017), 이때 성취동기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취동기가 높으면 학교적응도 높고, 성취동기가 낮으면 학교적응도 낮은 것이다. 이 결과는 박진규와 김태연(2018), 윤은영(20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를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이들의 학업 성취뿐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분야에서 성취동기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이중문화에 대한 스트레스는 성취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이래혁 외, 2020),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보다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진로장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진로장벽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적응이 높으면 진로장벽은 낮고, 학교적응이 낮으면 진로장벽은 높은 것이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학교적응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언어습득 및 학업의 어려움, 기초학력의 부족과 학업부진, 중도탈락의 어려움, 낮은 사회성 발달과 낮은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다(강현주 외, 2012; 김갑성, 2008; 김순규, 2011; 양계민 외, 2017; 오성배, 2007). 따라서 학교적응은 높이고,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다문화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언어장벽과 학업부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또래와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들이 사회성을 점차 발달시켜 나갈 때 학교적응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응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과 그로 인한 차별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박윤경, 이소연, 2009; 박준성 외, 2015),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적응은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교적응은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는데,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향상되어 간접적으로 진로장벽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문예와 이영(2016)은 성취동기가 학교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가치와 진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장혜림과 이래혁(2019)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은 개인의 내면적 특성과 이 시기에 중요한 환경체계인 학교적응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발달과업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과업 중 중요한 문제로서 진로는 개인의 내적 특성인 성취동기와 환경체계를 반영한 요인인 학교적응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지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성취동기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병수, 2015).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성취동기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개발·제공한다면 보다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 등이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심령, 2020), 이를 고려할 때 성취동기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행준(2011)은 일반가정과 비교했을 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만족도, 생활만족도, 학업만족도가 모두 낮은 것을 보고하였으며, 이들을 위해 가정환경은 물론이고, 학업성취, 또래관계, 교사관계 등과 같은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뿐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정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의 생활지원 및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진로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호요인을 강화하고, 학교 내 지지체계인 교사와 또래 등의 관심과 조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다문화 청소년은 이중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와 학업의 어려움을 동반한 학교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에 학교는 다문화 청소년을 면밀히 관찰하고, 부적응적인 특성을 초기에 파악하여 개인의 욕구와 수준에 적합한 지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은 다양한 진로장벽을 경험하는데,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합한 지원이 필요하다. 진로결정을 위해 선행되는 진로교육과 진로탐색에 있어 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진로교육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진로성숙도를 높이고(김소라, 황영준, 2016),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며(김영애, 2020), 진로계획을 세우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지애, 2020). 이에 더해 교사가 청소년과 진로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것은 진로교육에 있어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전영옥, 김태한, 2020). 이를 고려할 때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이 보다 개발되고 확대되어야 하며, 교사와 함께 자신의 진로문제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이중문화를 그들의 강점으로써 개발해 나가고 이를 진로와 연결시킨다면 진로선택 및 결정에 있어 다문화 청소년은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진로장벽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 등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심리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성취동기를 고취시키고, 학교적응을 보다 긍정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함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횡단적으로만 보아 종단적인 변화궤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궤적을 살펴봄으로써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보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장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과 나이 등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덕 (2009).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원덕, 안귀여루 (2010).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5(1), pp.161-175.
- 강현주, 김정화, 최민지 (2012).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비교를 중심으로 -, 청소년복지연구, 14(2), pp.281-306.
-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김민정 (2006).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실태: 다문화가정 청소년 사회적응실태 및 지원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갑성 (2008). 한국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pp.58-95.
- 김계현, 김영화 (2011).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대학생이 진로결정문제,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 자아정체감 성취와 조기완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9(1), pp.169-182.
- 김나래, 마립, 김경우, 이동귀 (2012). 중학생의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를 통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4), pp.1799-1818.
- 김민선 (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 성취동기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수 (2015). 청소년 성취동기역량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소라, 황영준 (2016). 고등학생 진로체험과 프로그램 평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9(2), pp.167-190.
- 김수미, 정경은 (2013). 다문화청소년의 낙인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34, pp.27-49.
- 김수현 (2007). 대학생의 진로장애에서 심리적 진로장애와 객관적/환경적 진로여건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4), pp.1057-1078.
- 김순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pp.247-272.
- 김순규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

- 학연구, 19(6), pp.109-128.
- 김영애 (2020). 체험활동과 지역사회인식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2), pp.27-52.
- 김영은, 정철영, 이건남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직업인식, 진로대안영역 및 직업포부, 한국실과교육회지, 25(2), pp.169-194.
- 김유경 (2011). 다문화가족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75, pp.45-62.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혜 (2009).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 자아존중감, 성취동기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선 (2013). 신규 여성 박사들의 경력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교육계열 전공자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1(12), pp.685-696.
- 김혜래 (2007). 중학생의 진로결정 실태와 진로성숙도의 생태체계적 변인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13, pp.51-74.
- 남부현, 최충옥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5(3), pp.117-137.
- 남윤주, 이숙 (2009).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아동의 모애착,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비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3), pp.357-367.
- 노지혜, 문성호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 및 진로성숙 예측요인, 청소년문화포럼, 58, pp.61-86.
- 박동진, 김송미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21(3), pp.267-289.
- 박윤경, 이소연 (2009).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생활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집단간 차이와 집단내 다양성, 시민교육연구, 14(1), pp.41-71.
- 박문예, 이영 (2016). 고등학생의 성취동기가 직업가치 추구 및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원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치료연구, 59(2), pp.385-402.
- 박미선 (2012).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매개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아 (1991). 성취동기훈련이 성취동기 수준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성, 최영진, 정태연 (2015).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와 사회문제, 21(4), pp.719-738.
- 박진규, 김태연 (2018). 교사의 진정성 리더십이 학생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55, pp.115-142.
- 서지훈, 신진숙 (2019). 지적장애 고등학생의 성취동기,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태도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혁신연구, 29(3), pp.53-76.
-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심령 (2020).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들 성취동기의 종단적 변화추정과 관련 요인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3(3), pp.55-84.
- 양계민, 강경균, 김주영 (2017). 다문화 청소년 종단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V: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성배 (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연구, 12, pp.1-15.
- 오성배, 서덕희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중등교육연구, 60(2), pp.517-552.
- 오정아, 남부현 (2014). 관계적 및 학교적응 요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21(2), pp.185-209.
- 윤은영 (2019).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학교적응의 종단적 관계연구, 다문화와 평화, 13(2), 1-22.
-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3, pp.37-72.
- 이경희, 윤미현 (2011). 청소년의 부모요인, 친구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6(1), pp.175-199.
- 이래혁, 채항석, 오채민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성취동기의 관계에서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49, pp.1-24.
- 이순형 (2007). 농촌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적응문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13-27.
- 이은설 (2005). 초·중·고 여학생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호 (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종단적 연구와 정책개발 : 질적 보고서,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혜미, 김유미 (2019).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식발달의 관계 : 성취동기와 진로관련 부모행동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 pp.665-689.
- 이형하, 김지선, 김지원, 송현경, 최은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사회적위축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83-184.
- 원재순, 김진숙 (2016).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3(9), pp.177-205.
- 장혜림, 이래혁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17, pp.189-218.
- 장혜진, 윤희미 (2010). 농촌아동의 가정환경자극과 학교적응관계에서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33, pp.7-36.
- 전병주 (2012).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및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0(11), pp.29-38.
- 전영욱, 김태한 (2020). 진로체험활동과 교사와의 진로대화가 중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2(3), pp.109-128.
- 정원식 (1985). 청소년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정지애 (2020). 중·고등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1(3), pp.683-696.
- 정행준 (2011).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경험·자아존중감·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화실 (2009).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형, 최상미, 엄태영 (2006). 남녀 청소년의 부모·친구·교사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5, pp.81-97.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제 1-6차 조사 데이터 유저가이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현정미, 신효식, 이선정 (2014). 남녀 청소년의 가족배경변인, 자아존중감 및 가족건강성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3), pp.1-15.
- 홍재양 (2001). 봉사체험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지선, 계은경 (2016). 여성 진로장벽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 진로발달단계를

-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3), pp.225-250.
- Albert, R. M. & Luzzo, D. A. (1999). The role of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7(4), pp.431-436.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1173-1182.
-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 McGraw-Hill.
- Dennis, M. McInerney, Valentina McInerney, Pat Bazeley & Angela Ardington (1995). Parents, peers, cultural values and school processes: What has most influence on motivating indigenous minority students' school achievement.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pp.545-579.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ynch, M., & Cicchetti, D (1997).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Adults and Peers: An Examination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pp.81-99.
- Luzzo, D. A. (1997). Correlates of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 McWhirter, B. T. (1997). Loneliness, learned resourcefulness, and self-esteem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5, pp.460-69.
- Murray, L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A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fifty men of college 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ao, D., Zhang, R., Lou, E., & Lalonde, R. N. (2018). The cultural shaping of career aspirations: Acculturation and Chinese biculturals' career identity styl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50(1), pp.29-41.

- Tram, J. M., & Cole, D. A. (2000).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the relation between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ce: Mediator or moderat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pp.753-760.
- Yu. A. B. & Yang. K. S. (1994). The nat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ctivistic societi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cibasi, S. C. Choi. S.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 18. Cross-Cultural Research and Methodology Seri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pp.239-250.

Abstract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Career Barrie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Adjustment -

Park Dong Jin* · Kim Song Mi** · Lee Ji 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career barrier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adjustment in those effect. To this en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data of a total of 1,329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6th year (2016)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urvey(MAPS)” establish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NYPI).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achievement motivation, career barriers, and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career barriers. While multicultural achievement motiv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barriers, school adjustment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Based on these findings, discussions were made to seek career support plans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suggestions were made to revitalize career support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yeong University, wookana@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hikoku Gakuin University, matumism0730@gmail.com

*** Co-Author : Doctorate Student,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Myongji University, verangel@nate.com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Key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 Achievement Motivation, Career Barriers,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투고일 : 2020. 11. 30. 심사일 : 2020. 12. 20. 게재확정일 : 2020. 12. 24.